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30 호
보 고 연 월 일	2021. 6. 2. (제 11 차)

보
고
사
항

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‘보험계약’
제정결과 보고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도 규 상
제출 연월일	2021. 6. 2.

1. 보고주문

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'보험계약' 제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

2. 제안이유

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'보험계약'을 제정('18.5.25.의결, '21.4.23.수정의결)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제정배경

□ 기존의 보험계약 기준서인 **IFRS 4 '보험계약'**(¹¹년부터 적용)은 각 국가의 다양한 보험 회계처리 실무관행을 그대로 인정*함에 따라,

* IFRS 4(보험계약)는 IFRS 17(보험계약)이 완성되면 폐지가 예정된 기준서로서, 보험부채 측정시 원가법 적용 등 기존 보험업 실무를 그대로 인정하였음

○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하기 어렵고, 다른 산업간 비교 가능성이 낮다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

- ① 국가별·보험사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
- ② 타 산업과 비일관된 회계처리
- ③ 과거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
- ④ 알기 어려운 이익 정보

□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)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기준 제정하여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을 달성하고자, IFRS 17 '보험계약'을 공표('17.5.18., '20.6.25.)

○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여 **K-IFRS 제1117호 '보험계약'**을 제정('18. 5. 25. 의결, '21. 4. 23. 수정 의결)

나. 제정안의 주요내용

1 보험부채의 평가

- **(현행)** 과거 정보(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적용)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원가법을 적용
 - 보험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지만, 보험부채는 시가로 평가하지 않음에 따라, 보험자산(시가) ≠ 보험부채(원가) 측정 불일치가 발생

< 보험부채 인식 관련 한국의 사례 >

- 현행 IFRS 4에서도 부채적정성평가(LAT, Liability Adequacy Test)제도를 통해, 보험회사가 인식한 보험부채에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요구함
- 그러나, 현행 IFRS 4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금리를 명시하지 않아 특정 계약의 경우 (예: 생명보험사 확정고금리 계약) 완전한 시가평가를 한 수준에는 미달(→ 보험부채(원가) < 보험부채(원가)+LAT(準시가) < 보험부채(시가))

- **(제정안)** 매 보고 시점마다, 장기 계약의 추정치 및 경제적 위험 등이 반영된 현재시점(보고시점)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로 부채를 측정함으로서 보험부채의 경제적 실질*을 반영

* 보험회사가 보고시점에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금액

< 보험부채 측정 회계처리 예시 >

- **(사례)** A보험사는 20년 후 10억을 일시 지급하는 연금저축 보험계약을 판매(판매당시 시장금리는 10%). 판매 10년 후 시장금리는 3%임
 - **(원가: 판매당시 이자율 10% 적용)** $10\text{억} \div (1.10)^{10} = (\text{보험부채}) 3.85\text{억}$
 - **(시가: 보고시점 이자율 3% 적용)** $10\text{억} \div (1.03)^{10} = (\text{보험부채}) 7.44\text{억}$

<재무상태표 上 보험부채 표시 예시>

(현행) IFRS 4 적용				(제정안) IFRS 17 적용			
보험자산	1,000	보험부채	400	보험자산	1,000	보험부채	800
		자본	600			자본	200

- ☞ 과거에 시장금리가 높은 시절에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는 시장금리가 하락할수록 보험부채의 시가가 커짐에 따라 부채비율이 악화

2 보험수익의 인식

- **(현행)**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 수익으로 인식(→ 현금주의)
 -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보험료를 많이 수취하면 그 금액을 전부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일시에 수익이 증가
 - **(제정안)** 매기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인식(→ 발생주의)
 - 보험수익에서 투자요소(저축요소)*는 제외
- * 보험사건의 발생과 관계없이,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(해약환급금, 만기환급금) 등

< 보험계약 관련 이익의 인식 패턴의 변화 >

- **新보험기준서(IFRS 17)**를 적용하면 계약에서 지급·수취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 차액만큼이 **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**되며, 잔여기간 동안 **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이익**(보험 계약마진)으로 인식
 - **(舊기준(IFRS 4))** 보험료 수취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 **계약 초기에 이익** 과다 인식
 - **(新기준(IFRS 17))**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 **보험계약 전체 기간에 걸쳐** 균등하게 이익 인식

<손익계산서 상 보험수익 등 표시 예시>

(현행) IFRS 4 적용

영업수익	(XXX)
(수취한)보험료수익	XXX
투자수익	XXX
영업비용	(XXX)
보험부채전입액	XXX
지급보험금	XXX
사업비	XXX
신계약비상각액	XXX
이자비용	XXX
영업이익	(XXX)
영업외손익	(XXX)
당기손익	(XXX)

→

(제정안) IFRS 17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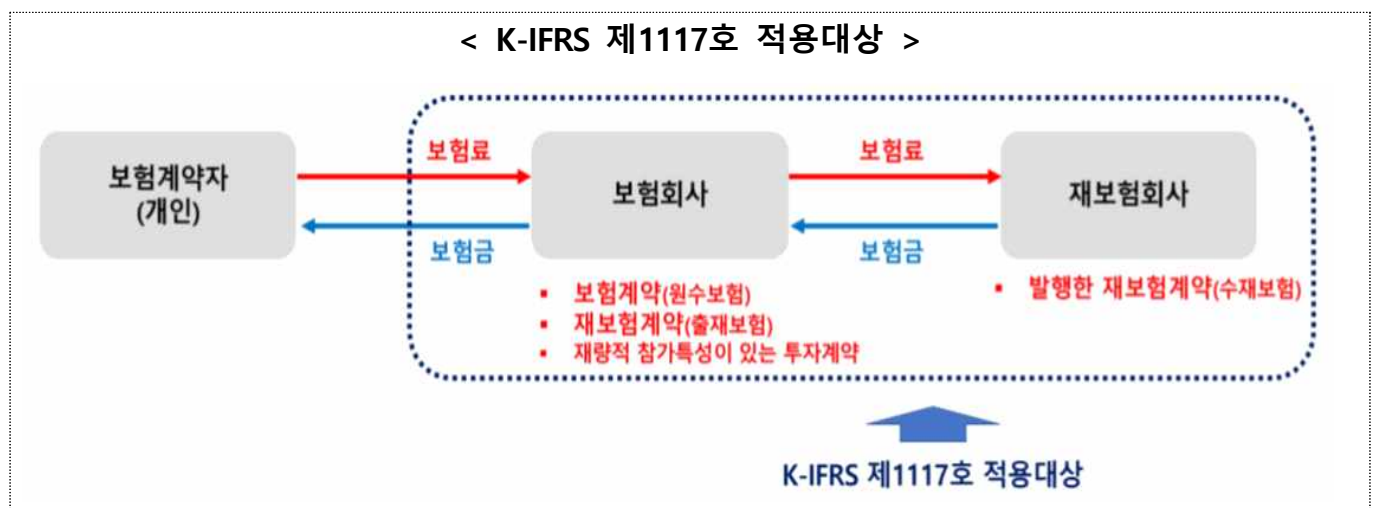
보험수익	(XXX)
예상보험금 및 사업비	XXX
보험계약마진 상각	XXX
위험조정 상각	XXX
보험서비스비용	(XXX)
실제보험금 및 실제사업비	XXX
보험서비스결과	(XXX)
보험금융손익	(XXX)
투자수익	XXX
투자비용	XXX
당기손익	(XXX)

다. 제정안의 세부내용

※ 보험의 특징

- 일반적으로 **보험서비스**(보험보장 특성)와 **투자서비스**(금융상품 특성)를 제공
- **상호부조**(mutualization)의 특성이 있음. 예를 들면, 암보험은 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건강상태를 가진 **비슷한 고객들이 모이는 특징**이 있음
- 보험사건(사망, 질병 등)은 매우 큰 **불확실성**을 가짐(예: 보험사건 발생여부, 시기, 금액 등)
- **보험계약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**, 보험부채의 측정시 **별도의 모형과 가정** 필요

① (적용대상) 다음의 계약에 제1117호 '보험계약' 기준서를 적용



❶ (보험계약(원수보험))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사건 (예: 사망, 질병 등)이 발생한 경우에,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는 계약

❷ (재보험계약(출재보험)*) 기업(보험회사)이 발행한 보험계약(원수보험)의 보험금에 대한 보상을 위해, 다른 기업(재보험회사)**이 발행한 보험계약

* A보험회사가 코리안리(재보험회사)에 인수시킨 보험계약(이를 통상 '출재'라고 함)

** 코리안리(재보험회사) 입장에서는 이를 '수재보험'이라고 함

❸ (재량적 참가특성*이 있는 투자계약) 계약에서 발생된 성과를 보험계약자에게 언제, 얼마를 줄지 보험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계약

*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성과를 보험계약자가 가져가는 것을 '참가'라고 함

② **(보험부채의 인식 · 측정단위)** 보험부채는 보험계약집합(group of contract)을 기준으로 측정하며,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의 집합을 정하고, 후속적으로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음

-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*를 식별하고 포트폴리오 내에서 최소 세가지 보험계약집합(①손실부담계약 집합, ②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없는 집합, ③나머지 계약 집합)으로 구분

* 포트폴리오: 유사한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관리되는 동일 상품계열의 보험계약(예: 사망보험, 건강보험, 상해보험 등)

- 또한, 같은 집합 내에 각 보험계약의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포함하지 않음

③ **(보험부채의 측정방법)** 보험계약의 유형에 따라 세가지 모형(①일반모형, ②보험료 배분접근법, ③변동수수료접근법) 中 하나를 적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*

* 보험계약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, 보험부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형과 가정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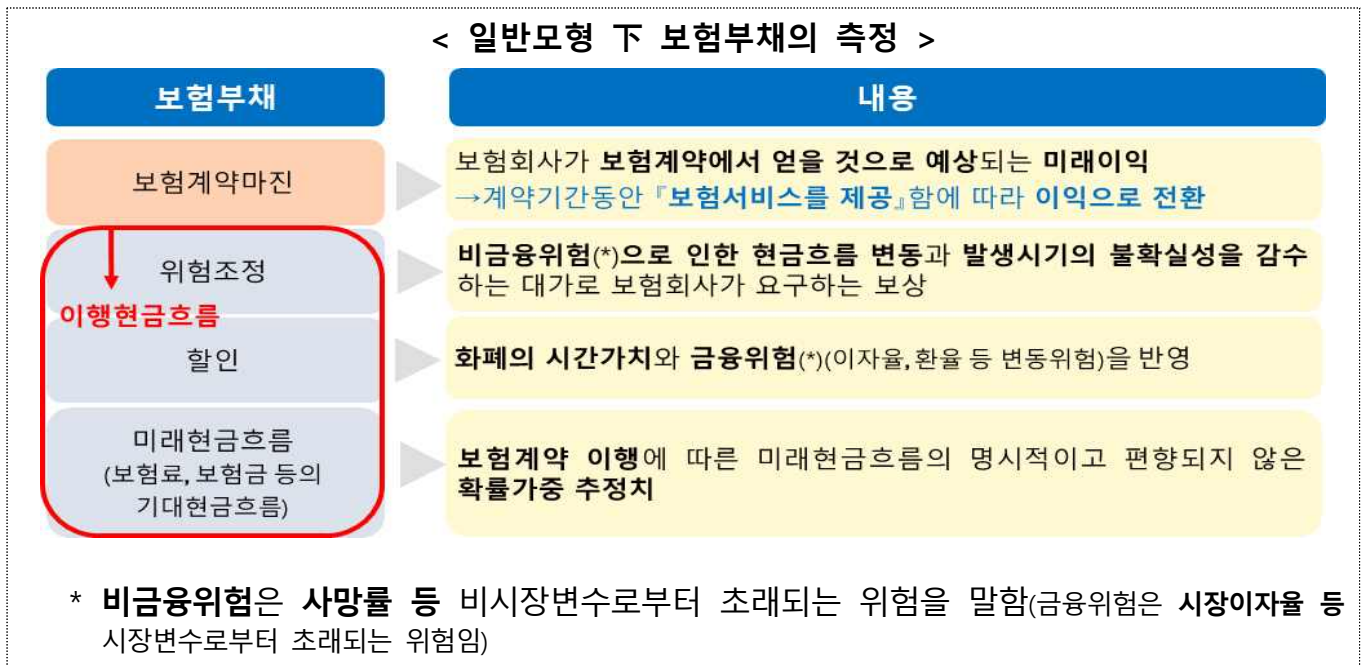
(1) 일반모형

- **(정의)** 보험계약에 대한 미래현금흐름 추정, 현금흐름 변동위험(위험 조정), 화폐의 시간가치 등을 현행기준으로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험부채 측정방법임

□ **(최초 측정)**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흐름의 **현재가치**(보고시점의 위험률, 할인율 등 사용)로 보험부채를 측정하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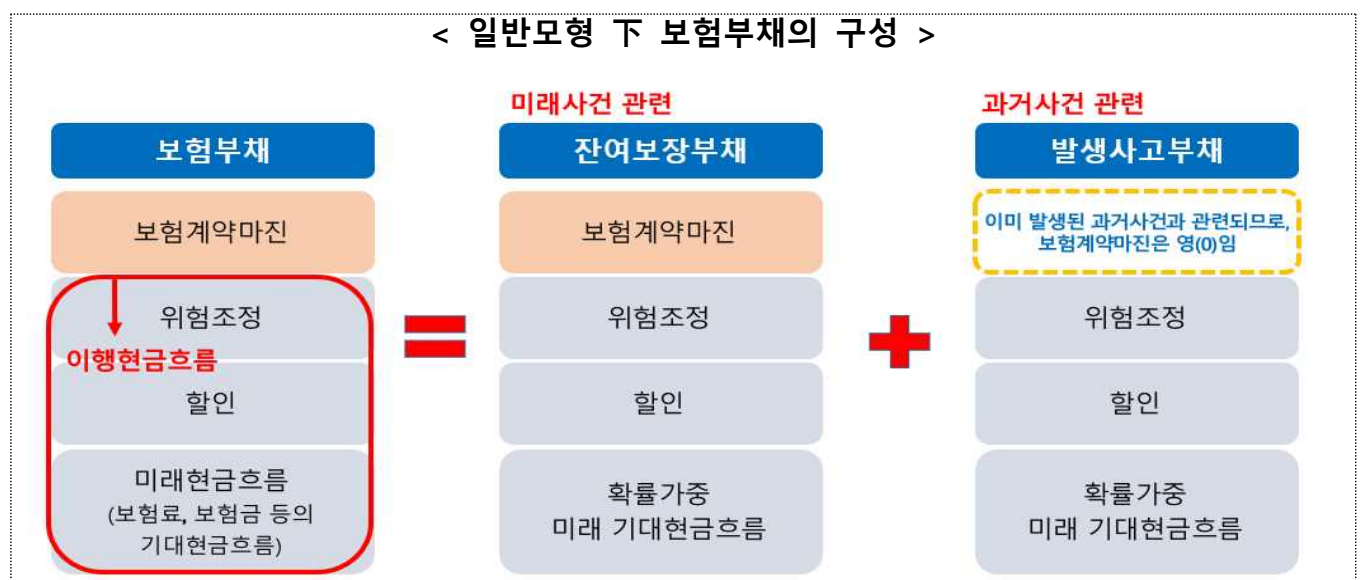
○ 보험계약마진^{이익}과 이행현금흐름^{현재가치(미래현금유출, 유입)+위험조정}의 합임

* **보험계약마진(CSM, Contractual Service Margin):** 보험계약의 위험이 반영된 **기대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**와 **기대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**의 차이임



□ **(후속 측정)** 보험부채는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합이며, 최초 인식시점의 발생사고부채는 영(0)*임

* 잔여보장부채는 보험계약의 '미래 서비스'와 관련된 부채이지만, 발생사고부채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(과거 서비스)와 관련된 부채이므로, **최초 인식시점에는 영(0)임**



(2) 보험료배분접근법

□ **(적용 대상)** 단기보험에 대한 잔여보장부채 측정에 적용가능하며,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(발생사고부채는 일반모형을 사용해야 함)

- ① 집합 내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. 또는,
- ②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가 일반모형이나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사용한 것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은 경우

□ **(측정 방법)** 보험부채의 최초 인식은 일반모형과 같지만, 향후 보험수익은 해당 기간의 보험료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단순화된 방법*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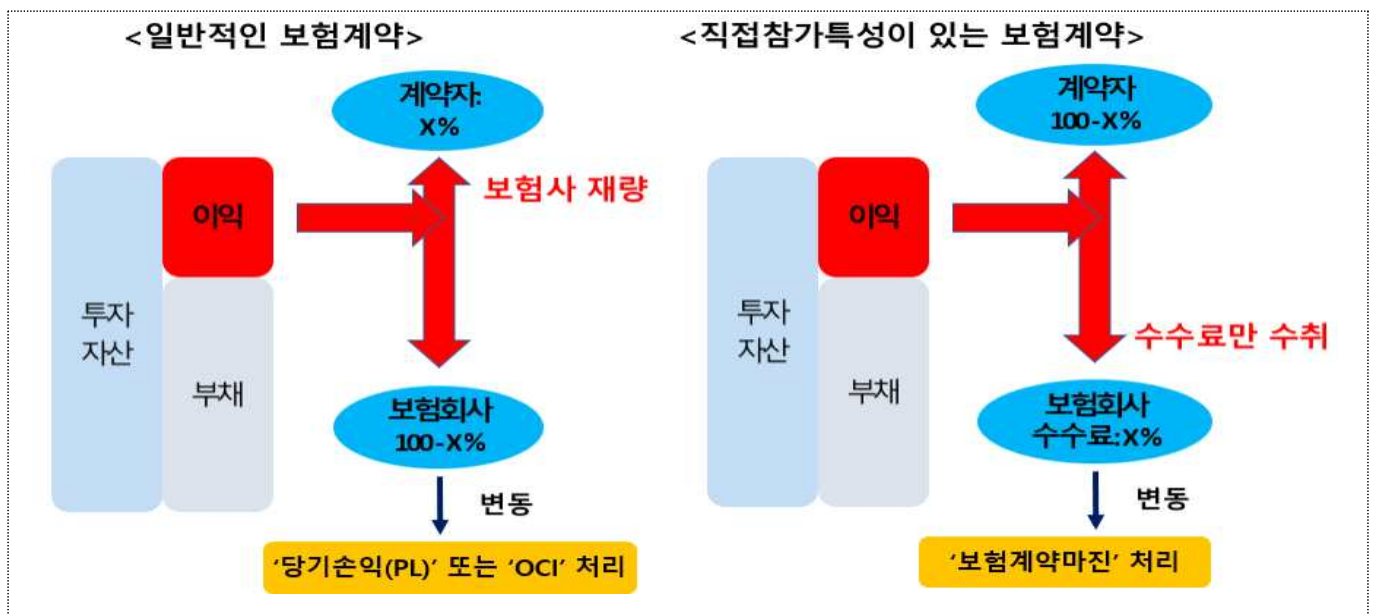
* 일반모형은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 보험서비스 제공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수익 인식

(3) 변동수수료접근법

□ **(적용 대상)** 통상적인 보험계약은 일반모형(또는 보험료배분접근법)을 적용하여 측정하지만, 직접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*으로서 3가지 요건**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동수수료 접근법 적용가능

* 기초항목에 근거하여 투자수익을 약정한, 경제적 실질이 투자 관련 서비스 계약인 보험계약을 말함(예 : 변액보험 등)

** ①보험계약자가 기초항목(pool)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계약상 명시, ②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상당한 몫을 지급, ③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기초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



□ **(측정 방법)** 보험계약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는 **일반모형** 下의 보험계약마진과 **변동수수료접근법** 下의 보험계약마진 금액이 동일

- 그러나, 후속적으로 **할인율 등 가정 변동**으로 인한 보험부채 변동은 일반모형 (→ OCI로 처리 가능)과 달리 **당기손익**(보험계약마진)으로 인식

후속측정	일반모형	변동수수료접근법
할인율 등 경제적 가정 변동	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(OCI) 인식	보험계약마진을 조정
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이자비용 인식	개시 시점의 할인율 사용	현행할인율(재측정)

④ **(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측정)**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만기에 걸쳐 보험계약마진을 **당기손익**으로 인식

⑤ **(재보험계약의 측정)** 일반모형 또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며, 변동수수료 접근법은 적용할 수 없음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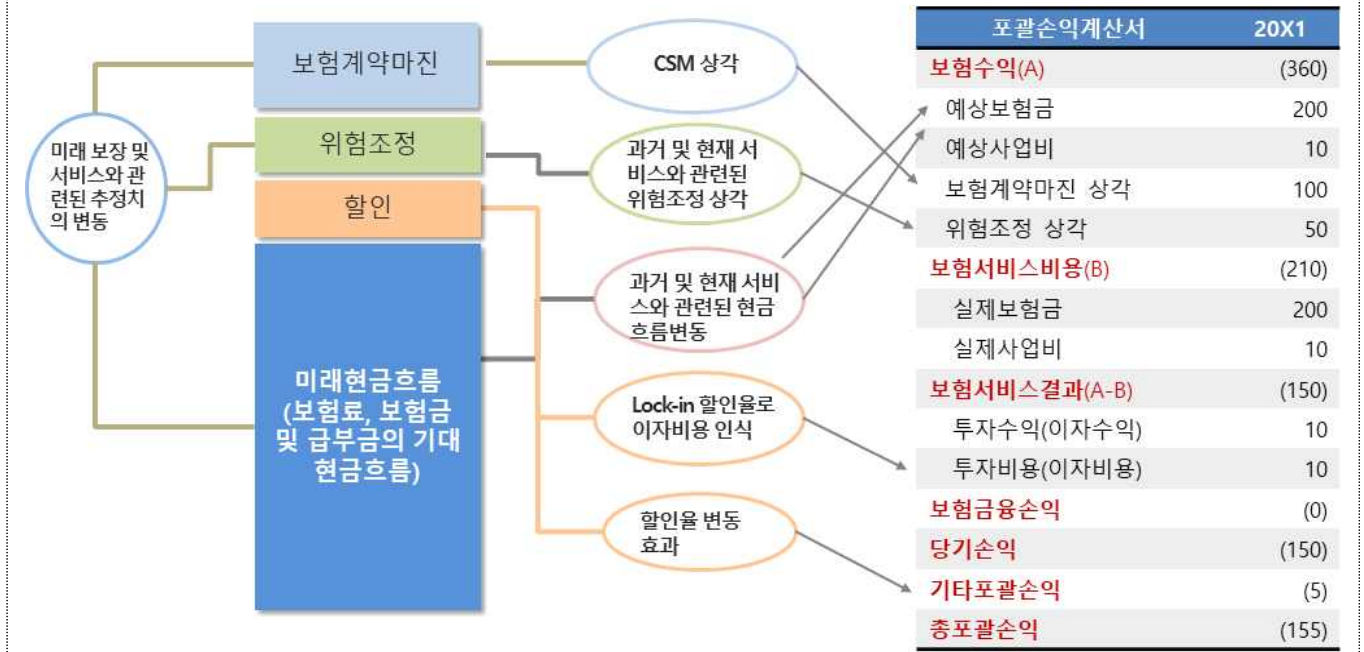
* 재보험계약은 기초자산의 일정 몫에 참여하는 특성(직접참가특성)이 없기 때문에, 변동수수료 접근법 적용 불가능

⑥ **(재무상태표)** 보험계약자산 및 부채(원수보험, 출재보험 포함)의 장부금액을 포트폴리오별로 구분하여 표시

⑦ **(포괄손익계산서)**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을 인식

- (보험계약마진 상각)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서비스제공 기간에 걸쳐 이익으로 인식
- (비금융위험에 대한 조정) 비금융위험(예: 사망률, 상해율 등)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대가를 반영하고, 추후 위험이 해소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

<손익계산서 상 보험영업손익 등 표시 예시>



라. 시행일

□ '23. 1. 1.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, 조기 적용 가능*

* 기업이 K-IFRS 제1117호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K-IFRS 제1109호 '금융상품'과 K-IFRS 제1115호 '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'을 적용한다면 조기적용 가능

마.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

□ **(회계정보의 유용성 증대)**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및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으로 보험사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○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부채의 실질 가치를 매 기간 보고시점에 재평가하게 되어 보험사가 부담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

□ **(자본의 변동성 확대)**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평가에 따라, 과거에 시장 금리가 높은 시절에 판매한 보장 상품이 많은 경우 재무비율이 현재 보다 악화될 수 있으며,

○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자본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제정경과

(1) 제정안 의결

- ☐ 2017. 12. 15. 제정 공개초안 의결(회계기준위원회)
- ☐ 2017. 12. 19. ~ 2018. 3. 14.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(금융감독원 등)
- ☐ 2018. 5. 25. 회계기준위원회 의결

(2) 수정 제정안 의결

- ☐ 2020. 10. 30. 개정 공개초안 의결(회계기준위원회)
- ☐ 2020. 11. 2. ~ 2020. 12. 31.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(금융감독원 등)
- ☐ 2021. 4. 23. 수정 제정안 회계기준위원회 의결

나. 제3차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보고(2021.5.25.)

다. 관련법규(붙임1)

라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제정안 전문 (붙임 2: 별첨)

마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제정안 영·한 대비표 (붙임 3: 별첨)

관 련 법 규

1.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제5조 (회계처리기준)

- ① 금융위원회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(이하 "증권선물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.
 - 1.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
 - 2.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
- ②~③ (생 략)
-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,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(이하 "회계기준제정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⑥~⑦ (생 략)

2.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- 제7조 (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위탁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(이하 "한국회계기준원"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- 1.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
 - 2.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
 - 3.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
- ②~⑦ (생 략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공정시장과
연 락 처	02-2100-2695